

## [ 경제 ]

# 상장사 2분기 실적 '기대 이상'

1분기 보다 매출액 6.02%, 영업이익 12.7% 늘어

##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 분석

상장사들의 2·4분기 실적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1·4분기 대비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9일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실적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 224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2·4

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55조 212억원과 14조 7천 36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2.70%, 9.5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4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액은 6.02%, 영업이익은 12.70% 늘어나 원화강세와 고유가 등 대외악재에도 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출액은 14조 5천 74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41%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1조 5천 676억원으로 2.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1·4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액은 7.26%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4.97% 감소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 1조 원대를 기록하면 2003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2조원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2·4분기에 영업이익 1조 1천 600억원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조선주가 속한 운수장비업종은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7.07%, 영업이익은 65.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조 4천 361억원과 4천 52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8.37%, 34.8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으나 환율 하락과 신차 출시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실적은 더 나빠질 가능성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수주 실적개선 추세 지속 = 내수주는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실적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내수주인 유통업종의 2·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4분기 대비 8.24%, 18.9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2·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천 795억원과 2천 17억원으로 10.25%, 7.4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과 서비스, 음식료업종도 2·4분기 영업이익이 7천 927억원, 5천 465억원, 3천 479억원으로 각각 44.99%, 36.49%, 44.27%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지주사를 제외한 은행업종의 매

출액은 15.39%, 영업이익은 13.87%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민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들이 충당금 환입 등으로 1·4분기 이익이 크게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은행업종의 실적은 내용면에서 2·4분기에 더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각각 16.79%, 23.8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48.50%, 28.4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중국 철강가 하락 여파로 1·4분기 실적이 악화됐던 철강업종은 제품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분기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9.46%, 37.62% 증가할 전망이다.

◇"상장사 실적 2·4분기 상승반전" = 증시 전문가들도 1·4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환율과 유가 변수로 인해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하지만 2·4분기 상장사 실적은 전체적으로 1·4분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망했다.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상장사 실적은 2·4분기 바닥을 탈출한 뒤 3·4분기부터는 정보기술(IT) 경기회복과 환율 안정에 힘입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실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 기업 소식 /

### 금호렌터카, 곡성 흑석마을 지원

금호렌터카(대표이사 이삼섭)는 지난 26~27일 자매결연마을인 곡성군 입면 흑석마을에서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는 금호렌터카 직원 40명이 참여, 마을 차량을 수리했으며 마을주민들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금호렌터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결연한 이후 마을발전기금 전달, 불우이웃돕기, 특산물 구매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추수기 일손돕기 등 흑석마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重, 월드컵 응원열기 '후끈'

현대중공업이 독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지난주 한국 대표팀의 두 차례 평가전에 애와 응원을 실시한 데 이어 꼭지점댄스 결연대회, 사내 축구대회 등을 통해 4년만에 찾아온 축구의 계절을 즐기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3일 한국-세네갈전과 26일 한국-보스니아전 당시 임직원 2천여명이 울산 현대예술공원에 집결해 단체응원전을 펼쳤고, 내달 13일 열릴 토고와의 독일월드컵 조별예선 첫 경기 때도 대규모 응원전을 벌일 계획이다.

### 삼성, 英 LCD TV 시장 소니 놀려

영국 LC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소니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영국 내 LCD TV 시장에서 점유율 14%를 차지, 2위인 소니보다 1~2% 포인트 앞섰다고 밝혔다.

5월 현재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금액기준 소니보다 1% 포인트 앞선 18%를 기록,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2만 6천대를 팔아 1억 5천 3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50만대에 4억 7천 400만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시장점유율 19%를 예상하고 있다.

### 기아차 中 임직원 "정회장 선처를"

기아차는 중국법인인 동광위에다 기아와 협력 대리점 임·직원들이 정봉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는 "정 회장이 하루 빨리 경영현장에 복귀,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법원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2002년 중국에 동광위에다 기아를 설립, 엔진지역에 13만대 규모의 중국1공장을 기동중이며,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엔진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중국2공장을 건설중이다.



### 유럽 최초 상용 '지상파 DMB폰' 출시

삼성전자는 독일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는 유럽 최초 상용 '지상파 DMB폰(모델명 : SGH-P900)'을 31일 출시한다. /연합뉴스

##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

### 경기종합 선행지수 3개월 연속 하락세

향후 경기동향을 예고해주는 경기종합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하반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5.9%를 기록, 3월에 비해 0.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 2월에 0.4%포인트, 3월에 0.5%포인트 각각 하락한데 이어 3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다.

4월 산업활동동향은 또 현재의 경기 회복 속도가 가속화하지 않은 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4월보다 9.5%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의 증가율(10.0%)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2개월째 증가율을 하락한 것이다.

다만 조업일수의 변동을 적용한 생산지수로 보면 지난해 4월보다 10.9% 증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코스닥 여성 CEO 주식 평가액 1위 정영희

#### 소프트맥스 대표 216억원

##### ■ 코스닥 여성 CEO 주식 평가액 순위 (26일 종가기준, 억원)

순위	기업	대표	평가액
1	소프트맥스	정영희	216
2	케너텍	정복일	139
3	대양이엔씨	임영현	122
4	메디포스트	양윤선	110
5	아이클러스	이수영	98
6	버추얼엑	서지현	58
7	우경찰강	조효선	37
8	소프트랜드	이진희	35
9	서주관광개발	권정운	30
10	디에스피	김영희	20

액이 같은 기간 247억원에서 166억원으로 줄었다.

여성 주식부호 3~4위는 임영현 대양이엔씨 대표와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로 각각 122억원, 110억원의 평가액을 기록했다.

케너텍의 정복일 대표는 올해 주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따라 평가

/연합뉴스

## 자영업가구 소득격차 더 벌어져

### 내수회복 효과 상위소득계층에 우선 나타나

#### 통계청 '1분기 가계수지동향'

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는 별다른 변화 없었지만 자영업·무직가구의 소득 격차는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1분기 가계수지동향'에서 자영업가구 및 무직가구인 근로자와 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은 12.9로 지난해 1분기의 11.6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이는 1분기 계층의 소득이 작년 1분기에는 4.2%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5.5% 감소한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작년 1분기 9.6%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도 5.4%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처럼 자영업·무직가구의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은 내수회복에 따른 서비스 활성화의 효과가 상위 소득 계층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개방과정에서 그동안 과다했던 영세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속에 원했

▲소득 5분위배율 = 소득 순위별로 20% 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최고 소득층인 5분위 소득을 최저 소득층인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든 원하지 않았던 자영업 진출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자영업의 과잉공급이 해소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자영업 가구간 소득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한국行 '러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설비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첨단산업 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이 활발한 국내 투자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연구개발(R&D) 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생산공장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네덜란드 계열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에이에스에스(AES)는 올해부터 10년간 1천 400여억원을 국내에 투자해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이와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민원)	마감일	연락처
㈜휴로넷	[주]5일(SK텔레콤)광주114 / CRM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31	02-780-9595
삼성출판사	[유치원]방문 영어교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371-2104
㈜한국공업엔지니어링	2006년 정규직 비교과교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31	062-369-0790
㈜케이스	정규직 TM 사원/[홍보]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31	062-236-1688
성신중공업(주)	경리부 여사원	고졸/경력1년	1,000~1,200	06/03	062-943-3909
㈜한맥D&S					